

# 朝鮮時代の 日本使節과 諸施設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Dispatch of Japanese Missions during Chosen Period, and their facilities.

許 萬 亨\*

Hur. Man Hyung

孫 光 濟\*\*

Sohn, Kwang Jae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of Japanese delegation and their route to Han-Yang(Seoul) and reception and all sorts of facilities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ption for Japanese delegates and all sorts of facilities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early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diplomatic facilities for Japanese delegates were established in Pusanpo(Pusan), Jipo, Yumpo and also delegates were invited to Han-Yang through the designated route.

2) Japanese from all areas of Japan have been correspond to Chosun, and many Buddhist monks were reside to draw up the diplomatic document. Also, temples were built in Japanese style.

3) In case of visit of the most reverend priest of Japan(Wang-guk-sa), Ta-rae-i and Su-pe-re were performed at Yun-dae-chung and Kaek-sa in Pusan.

4) Because of establishing diplomatic facilities (We-Gwan) and other supporting facilities (Kwan-A), Pusan has developed as only one diplomatic city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 I. 序 論

14世紀 中葉 동아시아는 動亂의 時代였다. 中國 大陸에서는 원제국의 支配에 對抗한 漢族의 싸움이 激化되어 朱元璋이 1368年 명나라를 일

으키지만 統一이 이룩되는 것은 1381年の 일이다<sup>1)</sup>. 日本에서는 南北朝의 爭亂이 계속되고 있었다. 南北朝의 爭亂은 民衆의 生活을 窮乏으로 몰아넣어 倭寇를 낳게 된다. 처음에는 쓰시마나 이끼(壹岐)의 농·어민들이 食糧을 구하기 위해 西日本의 沿岸地方을 휩쓸고 다시 고려나 명나라 沿岸까지 掠奪했다. 뒤에는 마쓰우라(松浦)나

\* 正會員 慶東專門大 專任講師

\*\* 正會員 大邱大 教授

1) 李進熙: 「韓國 속의 日本」, 同和出版社 1986. p.30.

세도나이(瀬戸内海)의 海賊까지 가담하게 되었다. 한편 고려는 그 무렵 兵力을 북쪽 변방에 보내 원나라와 대항하느라 南部의 沿岸地方으로 까지 兵力을 들릴 餘裕가 없었다. 그리하여 高麗는 日本 實力者들의 힘을 빌리는 政策을 표방, 그들에게 使臣을 보내게 된다.

朝鮮 建國 後에도 倭寇의 掠奪이 줄어들지 않아 朝鮮政府는 그 解決을 위하여 몇차례 아시카가 막부(足利幕府)에게 使節을 보낸다. 그리하여 1404년에 日本과 國交가 樹立된다. 그후 아시카가 쇼오군(足利將軍)은 壬辰倭亂前까지 60여회 使節을 朝鮮에 보냈으며, 그 規模는 300~500人 전후이었다. 朝鮮은 그들의 接待를 위해 막대한 經費를 投入했으며, 그 代表들을 上京시켜 우리나라의 代表인 學者·文人들과 만나게 하였다.

한편 그들이 請求하는 大藏經이며 佛書·佛像·鐘 등을 넘겨주어 「進上品」의 가치를 上廻하는 物品을 下賜하였다. 그뿐 아니라 三浦에 入港하면 出港하여 日本에 到着할 때까지의 食糧을 우리측이 負擔했다. 그들에게 厚慰厚賜한 것은 「外夷羈靡策」이 朝鮮政府의 對日 外交의 基本이었기 때문이다. 또 朝鮮政府는 그들의 宿所와 外交施設을 漢陽(서울), 그리고 三浦(富山浦, 鹽浦, 齊浦)에 設置하였는데, 이 施設들이 당시 都市를 構成하는 施設 중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대단히 컸으며, 그 性質도 一般建築과는 다르며 그 建立의 뜻도 큰 것이었다. 오늘날 이처럼 중요한 이들의 施設에 대한 研究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現在 悠久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이들을 調査·分析하여 그 實體를 把握함은 韓國建築史 研究에 큰 意義가 있다 하겠다.

本 研究에서는 朝鮮時代에 對日 外交를 위한 諸般施設의 設置背景과 그 特性을 밝히기 위하여, 史的考察을 통하여 日本使節의 歷史와 上京道路·接待·諸施設에 관하여 考察하고, 또 朝鮮時代의 그림과 文獻資料, 現在 남아있는 諸施設을 調査·分析하였다.

## II. 日本使節의 上京道路와 接待

### 1. 日本使節의 來朝와 上京道路

朝鮮 建國 後, 日本과의 善隣 關係를 樹立하기 위하여 몇차례 使節을 아시카가 쇼오군(足利將軍)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兩國은 1404년에 正式로 國交가 樹立되어 日本은 使節을 壬辰倭亂前까지 約60회정도 派遣하였다<sup>2)</sup>. 日本이 使節을 朝鮮에 派遣한 目的은 ①朝鮮國王의 慶弔, ②諸文化的 欲求充足, ③寺刹造營의 援助, 그리고 특히 貿易의 利得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壬辰倭亂 以後 朝鮮政府는 外交政策을 轉換하여 日本使節의 漢陽上京을 금하고 日本과의 外交는 전부 釜山에서 행하게 하였다. 그 이후, 日本使節의 上京은 1회로써 1629年(仁宗7) 玄方의 一行 뿐이었다. 日本使節의 上京人數와 路宴의 規模는 使節의 格에 따라 다르다. 「海東諸國記」<sup>3)</sup>에 의해 整理하면, 日本國王使인 경우 上京人數는 25人, 路宴은 5個所(慶尙道 3個所內 1回 觀察使, 2回 守令 主催, 忠淸道·京畿道 各 1個所 觀察使 主催)이었다. 巨魯使(有力守護大名의 使者)는 上京人數가 15人, 路宴은 4個所(慶尙道 觀察使·守令 各1回 主催, 忠淸道·京畿道 各 1個所 觀察使 主催), 對馬特送使 九州節度使(九州探題)는 上京人數 3人, 路宴 2個所(慶尙道, 忠淸道 各 1個所)였다. 朝鮮政府는 壬辰倭亂 以前에는 日本國王使가 派遣되면 그 代表를 漢陽까지 招待하여 接待하였으며, 漢陽까지 上京道路(倭人上京道路)는 陸路의 3路(中路, 左路, 右路)와 落東江과 漢江을 이용한 水路 1個所가 指定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朝鮮政府가 日本使節에 대한 規模와 上京道路를 指定하여 接待한 것은 모두 倭寇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이루어졌다. 上京道路의 經路<sup>4)</sup>는

2) 三浦周行博士, “足利時代における日鮮貿易に關する考察”, 靑丘學叢, 第4號,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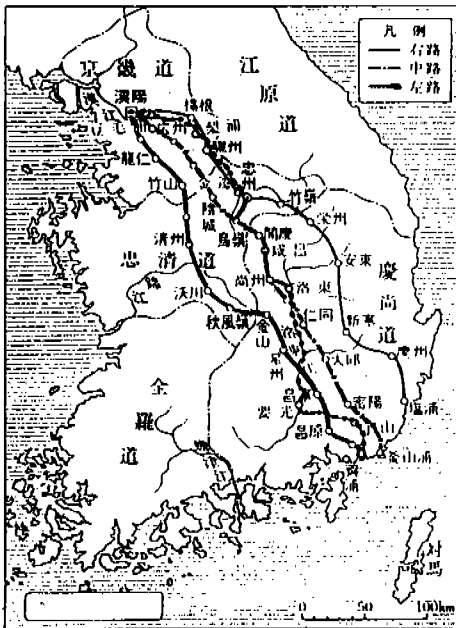
3) 「海東諸國記」, 上京人數·路宴條.

4) 「世宗實錄」, 14年.1月.8日條.

- 中路: 釜山浦→梁山→密陽→清道→慶山→大邱→仁同→善山→尙州→斷谷→聞慶→鳥嶺→安保→延豐→槐山→利川→廣州→漢陽
- 左路: 釜山浦→肝谷→蔚山→慶州→永川→義興→安東→榮州→豐基→竹嶺→丹陽→忠州→嘉興→驪州→楊根→奉安→平丘→漢陽
- 右路: 釜山浦 또는 齊浦→梁山→金海→昌原→昌寧→玄風→茂溪→星州→金山→秋風嶺→永東→沃川→清州→鎮川→竹山→龍山→樂生→良才→漢陽

· 水路: 釜山浦 또는 齊浦에서 金海佛殿津→龍堂(梁山), 여기에서 落東江의 本流를 北上하여 落東(尙州郡 落東面)에 上陸, 그리고 咸昌에서 斷谷→鳥嶺→安保→丹月→金遷(中原郡 可金面)까지는 陸路, 金遷에서는 漢江을 이용하여 豆毛浦(현 서울 용산구)에 上陸하여 漢陽의 東平館으로 들어 간다(그림2-1).

陸路의 一日行程은 約6里이었고, 釜山浦에서 中路로 上京하면 漢陽까지 14日, 左路는 15日, 水路로는 21日이 걸렸다.



(그림2-1) 日本人의 上京道路(筆者作成)

## 2. 漢陽에서의 接待

壬辰倭亂前 日本使節의 上京이 빈번하였던 때에는 漢陽의 南部·樂善坊의 倭館洞이라는 곳에 東平館이라고 하는 專用 宿所가 設置되어 있었다. 接待는 格에 따라 行했다. 正使, 副使, 船主 및 隨行員에게는 요리된 飲食을 接待하고, 船員에게는 쌀·간장·물고기 등을 現物로 支給하였다. 入國한 使節은 4段階로 等級지어졌다. 最高位級은 國王使, 다음이 巨酋使, 그 다음이 九州探題와 소오(宗)씨, 그리고 最下位級이 諸酋使(過去の 海賊 頭目)이다. 滯留할 수 있는 日數도 日本國王使는 制限이 없지만 巨酋使의 경우에는 35日, 그 以下는 5~10日이다. 使節이 漢陽에 到着하면 東平館 迎宴이 行하여 지는데, 이때 國王使일 경우는 漢江에서, 巨酋使는 宿所에서 行하였다. 그리고 天下의 宴會가 있는데 이것은 使節이 上京하여 王宮에 가서 國王에게 인사하는 것이다<sup>5)</sup>. 이것은 使節이 歸國하기 전에 行하는 離別의 인사와 함께 重要한 行事이었다. 이 行事들은 대부분 景福宮의 근정전에서 行하여졌으며, 上京使節들이 國王을 뵈을 때는 比단신을 신었다. 이 肅拜儀式이 끝나면, 바로 항례의 關內宴, 즉, 上京使節에 대한 祝賀宴會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使節들은 國王에게 進上物을, 國王은 回謝品을 下賜한다. 이 宴會에 이어 禮曹에서 行하는 祝賀宴이 歸國前까지 4차례 行하여 지는데, 禮曹란 國家의 制禮를 비롯하여 朝日兩國間의 모든 外交業務를 管掌하는 官廳이다. 그곳에서 主催하는 宴會에는 最高位의 判書(正2品)가 出席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外交의 儀禮라기 보다는 上京使節과 朝鮮政府 間의 交涉場所이다. 따라서 막부로부터 指示된 外交問題나 貿易問題등이 모두 여기에서 論議되었다. 이 宴會가 끝나면 別下程의 物品이 禮曹로부터 3回, 승정원에서 1回, 上京使節에게 내려진다<sup>6)</sup>. 別下程이란 品目을 限定하여 使節에게 支給하는

5) 『海東諸國記』, 關內宴條.  
6) 上書, 明日宴條.

것이다. 別下程의 品目を 「海東諸國記」에 의해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술 5병, 초 3되, 간장 1말, 眞油 3되, 淸蜜 1丸, 거자 1丸, 大 2丸, 松實 2丸, 棒子 2丸, 五味子 1合, 眞末 3되, 生粟 2丸, 배 30개, 돼지 1마리, 닭 3마리, 생선 3작, 홍합 1丸, 干鮑 1, 마른 해삼 1丸, 새우젓 1되.

合計 20余種이다. 또 이 외에도 上京使節이 특별히 원하는 物件을 下賜하는 求請이라는 制度와 京官職의 官吏가 主催하는 晝奉拜도 있었다<sup>7)</sup>.

### 3. 釜山에서의 接待

日本の 使節이 釜山에 到着하면 豆毛浦萬戶 또는 開雲浦萬戶가 召探將이 되어, 召探通事와 陪通事를 데리고 가서 정하여진 儀式과 節次에 의해 調査한 후 東來府使가 中央政府에 이를 報告한다<sup>8)</sup>. 一行은 召探將의 門情(儀式과 調査)이 끝나면 바로 배에서 내려 朝鮮官吏인 別差의 案內에 의해, 國王의 殿牌를 모시고 있는 客舍에 가서 肅拜禮를 올린다. 肅拜禮가 끝나면 宴大廳에서 下船茶禮와 下船宴, 別宴, 名日宴, 禮單茶禮, 上船宴등의 宴享이 열린다. 그 후 日本使節은 倭館에 있는 宿舍 西館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宴享과 接待는 中央에서 派遣된 接慰官(文官 3品)이 主觀하였다. 日本國王使가 釜山에 머무는 동안 宣慰使가 1回, 差使員이 3回의 宴享을 베풀었다. 食事は 日本國王使는 熟供이라고 하는 삶은 飲食을 朝食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의 船員들은 하루에 두번씩 쌀2되를 준다. 飲食은 朝食때에 車食七果床과 三度湯, 아침과 저녁은 七牒床飯羹과 二樣湯·二樣稷, 점심은 五牒床飯羹과 一樣湯이다<sup>9)</sup>.

당시 釜山에는 日本使節의 派遣이 빈번하여 그들의 接待 費用으로 막대한 國費가 所要되었다. 1468년의 예를보면 東來縣의 田稅가 日本使

節의 接待費로 全部 使用되었고, 1477년에는 慶北地方의 各郡·縣의 米穀까지 接待 費用으로 充當되었다<sup>10)</sup>. 이와같이 많은 接待費를 使用하면서 倭寇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朝鮮政府가 얼마나 努力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다.

## III. 日本使節을 위한 諸施設

### 1. 諸施設의 形成과 變遷

朝鮮은 日本과 國交를 樹立한 後, 1407年 日本에 대한 外交施設로서 漢陽에 東平館과 西平館·墨寺의 3個所(현 충무로4가)와 富山浦(부산포)·乃而浦(제포)·鹽浦에는 倭館을 設置하였다. 그 후, 漢陽의 外交施設은 1434年에 東平館과 西平館을 합쳐 建物を 增築하였으나 壬辰倭亂後 富山浦倭館만 豆毛浦로 移轉 設置(1609)하고 다른 모든 施設들은 閉鎖하였다. 또 1678년에는 日本의 要求로 豆毛浦倭館을 現 龍頭山一帶로 擴大 移轉하고 草梁倭館으로 불렀다(그림 3-1). 그 외 使節의 寄宿地인 各州·府·郡·縣에는 客舍라고 하는 施設이 設置되었다. 客舍는 地方에 設置된 官衙施設의 一部分으로써 가장 重要한 施設이었다. 客舍에는 크게 2가지의 役割이 있는데, 하나는 王을 象徵하는 殿牌와 宮闕을 象徵하는 闕牌를 安置하여, 王이 있는 漢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地方에서도 王을 충실히 섬기고 있음을 象徵하는 役割이며<sup>11)</sup>, 또 하나는 그 이름과 같이 外國의 使臣이나, 中央에서 派遣되는 官吏들의 宿所로서의 役割이다.

殿牌와 闕牌의 遺物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朝鮮古跡圖譜」에 그 寫眞이 남아 있다(그림 3-2). 客舍의 制度는 高麗時代부터 행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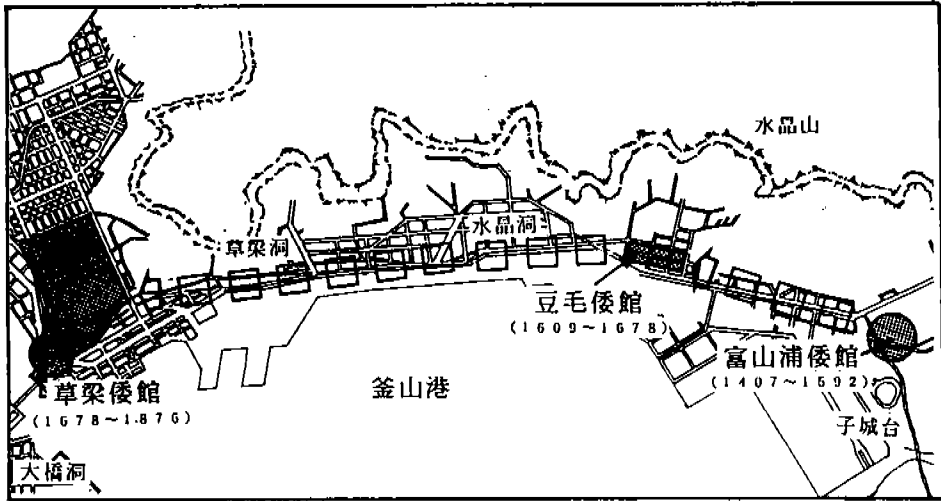
8)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 「釜山市史」, 第一印刷所, 1989, p.746.

9) 釜山市史編纂委員會 : 「港都釜山」, 第2號, 太和印刷所, 1963, p.73.

10) 「世宗實錄」, 16年6月24日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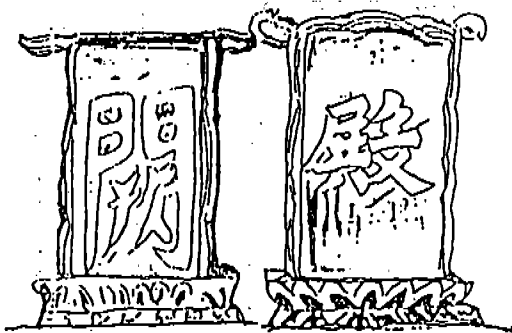
11) 茶山研究會 : 牧民心書, 第5號, 創作과 批評史, 1985, p.243.

7) 田代和生, “寬永六年御上京之時每日記”, 朝鮮學報, 第95輯, pp.106.



(그림3-1) 釜山에 있어서 倭館의 位置變遷圖(筆者作成)

졌다는 記錄(高麗史, 高麗圖經) 이 있다<sup>12)</sup>. 또 客舍의 附屬建物로서 樓建物이 建築되어 있는 地方도 있다. 이곳은 外交 使節이나 中央政府 官吏가 派遣되면 饗宴이 열리는 場所이다. 그 代表的인 곳은 密陽의 嶺南樓이며, 이곳은 密陽江이 내려다보이는 絶壁위에 建築되어 있다. 특히 이 場所는 日本國王使가 派遣되었을 때 外交와 文化 交流의 場으로서 대단히 큰 役割을 한 場所이며, 지금도 外交使節이 派遣되었을 때 嶺南樓에 대하여 지어진 漢詩가 남아 있다.



(그림3-2) 殿牌와 關牌(朝鮮古蹟圖譜士)

2. 三浦에 있어서의 諸施設

1) 富山浦 倭館

「海東諸國紀」<sup>13)</sup>에 있는 東來釜山浦 地圖(그림3-3)를 보면 釜山灣內에 하나의 작은 河川이 보이고 서쪽 海岸에 독립된 작은 산이 있으며 그 북쪽에는 倭館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작은 산과 하천사이에 집들이 그려져 있다. 그 속에는 「見江寺」, 「憩月庵」이 있고 倭館의 서쪽에 「營廳」, 북쪽에 「東平縣」이 있다. 그 동쪽에는 각아지른 듯이 우뚝선 산 저쪽에 東來城이 그려져 있다. 地圖의 뒷면에는

「自東來至富山浦二十五里,恒居倭戶六十七,男女老少餅三百二十三」

라는 內容이 記錄되어 있다. 결국 釜山浦는 東來에서 25里 떨어져 있고, 常住日本人은 67戶·323人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500年前 朝鮮前期, 300余名이 常住하는 倭館이 形成되어 그들의 寺刹까지 세워 生活하였던 것이다. 現 釜山市街地圖(그림3-4)를 보면 釜山浦의 가장 안쪽에 「子城臺」라고 부르고 있는 독립된 작은 산이 있고 그의 동쪽에 凡川이라고 하는 작은 河川이 흐르고 있다. 東來縣의 地域은 지금의 釜山鎭區 堂甘洞으로서 그 位置는 子

12) 「高麗史」, 顯宗1年.5月24日條.

13) 「海東諸國紀」, 東來釜山浦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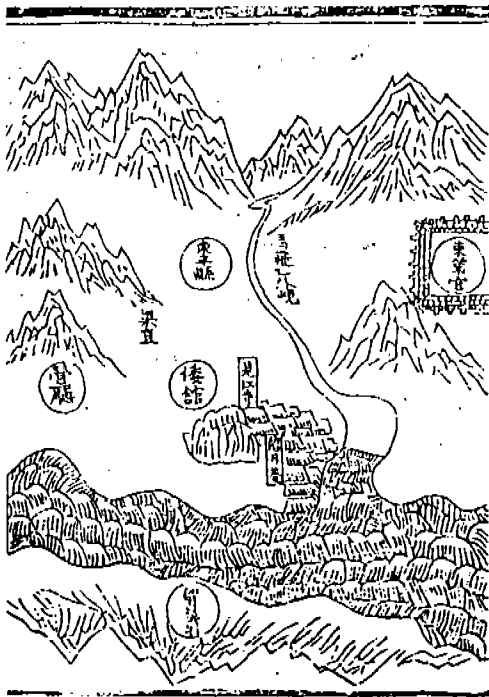
城臺의 서북쪽이다. 또 東來城은 地圖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이, 동북쪽에 있는 東來邑城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子城臺는 결국 倭館의 남쪽에 보이는 獨立된 산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東來釜山浦 地圖에 보이는 「營廳」 뒷쪽의 산은 水晶山이고, 그의 북쪽 「東平縣」 좌측에 있는 것은 百陽山, 東來城과의 사이에 높이 솟은 산은 荒嶺山으로 보인다. 그래서 子城臺의 남쪽에는 釜山浦를 사이에 두고 絶影島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면 海東齊國紀의 地圖는 정확한 관찰력으로 作成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子城臺의 북쪽에 倭館이 있었음이 確實하다. 「東來富山浦倭館之圖」를 보면 富山浦倭館은 釜山鎭市場 附近인 것 같다. 이 市場은 朝鮮時代부터 現在까지 市場으로 열리고 있다.

2) 熊川の 齊浦倭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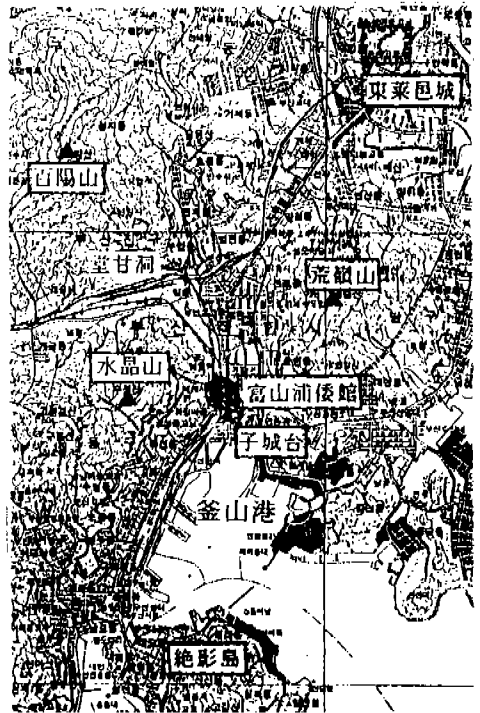
熊川齊浦 地圖<sup>14)</sup>(그림3-5)를 보면 우측 海岸附近的 작은 산기슭으로부터 熊神縣 산기슭의 海岸에 걸쳐 人家가 ㅼㅼㅼㅼㅼㅼ 그려져 있고, 그 우측에 「倭館」, 좌측 위에 「營廳」이 圖示되어 있다. 그리고 日本人의 寺刹인 憚福寺, 江腹寺, 長松庵, 觀音寺, 照雲寺, 陳明庵, 湖音寺, 荒神庵, 正明寺, 安養寺, 佛寺가 우측의 산중턱에 그려져 있다. 海東諸國紀에는

「恒居倭戶三百八,人男女老少餅 一千七百二十二」

로 記錄되어 있어, 人口에 비해 寺刹의 數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常住者의 出身地가 틀리고 宗派도 다양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外交文書 作成등의 任務를 擔當하는 僧侶도



(그림3-3) 富山浦 地圖(海東諸國紀)



(그림3-4) 釜山市街地圖

14) 上書, 熊川齊浦之圖.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1471年頃 齋浦에 常住한 日本人 數는 釜山浦의 5倍를 넘고, 貿易船으로 오는 사람들을 더하면 그의 배가 넘는다. 이는 釜山浦쪽이 대마도에 가깝고 上京하기도 便利한데도 어찌서 齋浦에 常住하는 日本人이 많았는가의 疑問이 생긴다. 그것은 아마 바람과 해류등의 이유로 대마도의 西海岸에서 巨濟島를 향해 그 동쪽으로 北上해서 齋浦에 들어가는 것이 釜山浦로 가는 것 보다 便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圖之浦齋川熊



(그림3-5) 熊川齋浦 地圖(海東諸國紀)

3) 鹽浦 倭館

鹽浦가 開港場으로 日本人에게 開放되어 倭館이 形成된 것은 1426年이다. 海東諸國紀의 鹽浦地圖<sup>15)</sup>(그림3-6)를 보면 倭館의 背後에 험한 산

으로 그려져 있고 좌측에는 日本人의 寺刹과 營廳이, 前方에는 河川과 左兵營이 그려져 있다. 地圖 뒷면에는

「自鹽浦由永川竹嶺忠州楊根至京城十五日程,由水路慶州,丹陽,忠州,廣州至京城十五日程,自蔚山至鹽浦三十里,恒居倭戶三十六男女老少餅一百十一寺一」

로 記錄되어 있다. 鹽浦로 들어온 日本의 使臣은 陸路와 水路로 上京하게 되어 있고 漢陽까지의 日程은 15日로 정해져 있다. 또 鹽浦는 蔚山에서 30里 떨어져 있고 常住하는 日本人은 36戶·111人이었다. 「海東釋史」를 보면 鹽浦는 높이10尺의 石壁(周1039尺)으로 둘러져 있고, 居住하는 日本人의 家屋외에 우물이 3곳이 設置되어 있었다. 近年에는 近代化로 埋立工事が 시작되어 鹽浦의 一部가 이미 現代自動車株式會社의 敷地가 되었다. 倭館은 오늘날의 城內 聚落에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中區에 있었다는 說도 있다.

3. 釜山에 있어서의 諸施設

壬辰倭亂 이후 朝鮮政府는 日本에 대한 外交施設인 倭館을 釜山의 豆毛浦에만 設置하고, 그 以前의 施設은 모두 廢止시켰다. 그러나 그 후 日本의 要求로 現 龍頭山 一帶로 擴大 移轉하여 草梁 倭館이라 하였으며<sup>16)</sup> 한편 倭館을 擔當하는 朝鮮 官衙와 日本使節의 接待 施設도 함께 設置하였다<sup>17)</sup>.

당시 日本 使節의 宿舎는 草梁 倭館의 西館이었으며, 그 構成은 東大廳(20間), 中大廳(20間), 西大廳(20間)등 3大廳이 있었으며<sup>18)</sup>, 各 大廳에는 東幹(35間), 西幹(25間)과 두곳의 行廊(各56間)이 있었다(그림3-7). 이 宿舎는 使節의 格에 의하여 大廳이 區別되었고, 日本 國王使는 東大廳(現 大覺寺)에, 그리고 副特은 中大廳, 第1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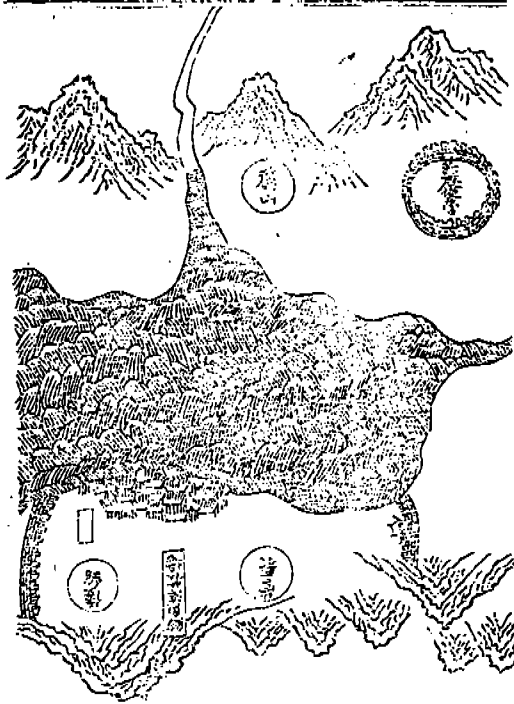
16) 「通航一覽」, 卷124, 朝鮮國部百貿易條.

17) 「釜山府史原稿」, 卷4, p.317.

18) 朝日新聞社: 宗家記錄과 朝鮮通信使展, 求龍堂, 1995, p.86.

15) 上書, 蔚山鹽浦之圖.

蔚山監浦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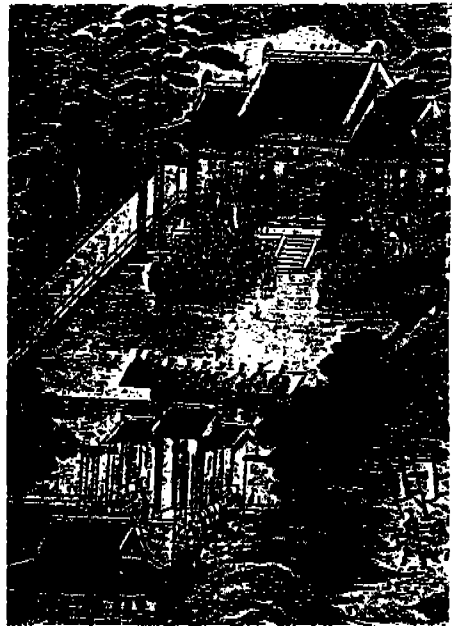


(그림3-6) 監浦 地圖(海東諸國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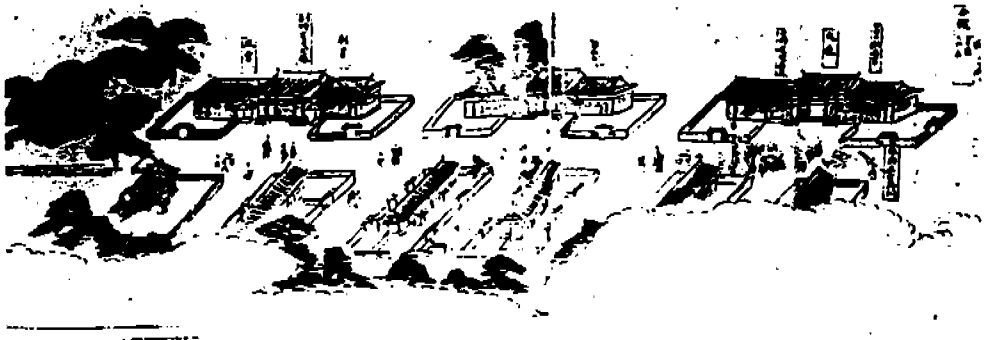
은 西大廳에서 留宿하였다. 또 饗宴을 위한 宴大廳도 建設되었다. 이 場所는 日本 使節이 持參한 書啓를 받고(茶禮儀), 善隣友好의 饗宴(宴享儀)이 開催되었던 곳이다. 그리고 朝鮮官衙로

서 客舍가 있었는데, 壬辰倭亂 이후, 日本使節의 漢陽上京이 禁止된 후 日本使節은 全部 이곳에서 國王과의 接見과 肅拜禮가 行하여졌다(그림 3-8).

肅拜禮는 別差가 日本使節의 一行을 引導하여 客舍大門 앞에 到着하면 말에서 내려 大門 안으로 들어와서 使節과 別差·訓導는 서쪽에 서고, 朝鮮의 接慰官은 동쪽에 선후, 禮房吏가 殿牌를 열고 향을 피우고 의장을 配列하면, 小通事의 구령에 맞추어 모두 4회 절을 한다. 그리고 倭



(그림3-8) 肅拜禮(朝鮮時代通信使)



(그림3-7) 草梁倭館의 西館(日本京都 谷村一太郎氏藏)



館을 擔當하는 朝鮮官衙 施設로서는 誠信堂·賓日幹·柔遠館·通事廳·別差廳 등이 있었다<sup>19)</sup>. 그 構成은 誠信堂이 誠信堂 10間·內舍 8間半·行廊 10間·歇所 5間·沙器庫 2間·大門 1間 이었고, 賓日幹은 內舍 9間·行廊 6間·馬厠 2間·中門 1間·大門 1間, 柔遠館은 柔遠館宅官 所在의 大廳 6間·別堂 4間半·行廊 6間·大門 1間, 通事廳은 通事廳 6間·通引房 5間·大門 1間·使令房 6間, 別差廳은 別差廳 2間·內舍 4間·行廊 6間·歇所 1間·大門 1間 등이었다. 그 位置는 誠信堂의 東측에 通事廳, 南측에 別差廳이 位置하였으며, 別差는 日本專門家를 養成하는 機關으로서 1623년에 設置되었으며, 그 教育期間은 1年이었다.

#### IV. 現存하는 諸施設

##### 1. 典醫監

壬辰倭亂 이후, 日本使節의 漢陽까지 上京이 許諾되지 않았던 1629年 朝鮮에 派遣된 日本使節의 玄方一行은 예외로 漢陽까지 上京하였다. 이 때의 宿所로서 正使와 副使는 典醫監(太醫監, 司醫署), 隨行員들에게는 그 옆에 臨時建物を 세워서 留宿하였다. 日本使節의 上京이 許諾되었던 時期(1404~1592年)에는 漢陽(서울)의 南部에 있는 樂善坊의 倭館洞이라고 하는 곳에 「東平館」이라고 부르는 日本使節의 專用宿舍가 設置되어 있었다. 그러나 玄方의 一行이 上京하였을 때에는 그 施設들은 全部 閉鎖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宿所는 臨時 宿所였으며, 「承政院日記」 閏4月 23日條에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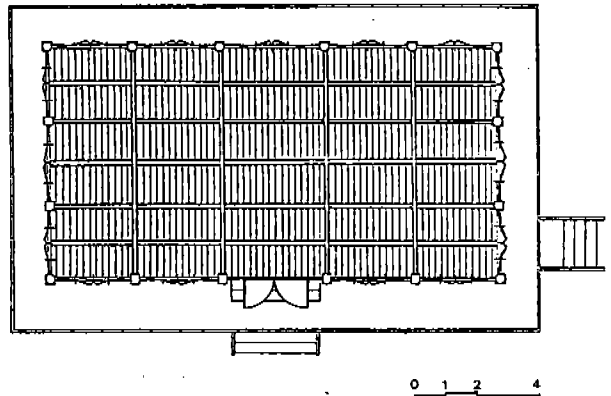
「接慰官 鄭弘溟, 客舍玄方·平智廣, 漢江下陸, 由崇禮門入干典醫監」<sup>20)</sup>

이라고 記錄되어 있으며, 또 「方長老朝鮮物語付柳川始末」에는

「京に入て典藥の宅を点して旅宿とす,其

前に反屋をたてて禮賓館に擬す,金榮祖といへる者,此館を司る,季鞞庵と云る官人館伴たり」

로 記錄되어 있으므로, 禮曹 위의 典醫監을 宿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급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使節 一行의 宿所로 하기에는 狹小하였다고 한다. 建物の 構造는 正面 5칸, 側面 2칸으로서 각기등과 원기등을 사용하였으며 5량 팔작지붕이다. 外觀은 아주 단정하고 간소한 建物이며, 正面에 2개의 문이 있다. 또 內部の 바닥은 모두 大廳으로 構成되어 있다. 典醫監은 1884年 4월에 韓國郵政總局이 最初로 設置되었던 곳으로서 現在 「遞信記念館」으로서 保存되고 있지만(그림3-9), 安國路의 擴張으로 東측의 敷地와 隨行員들이 머물렀던 假設 建物は 없어져 버렸다.



(그림3-9) 典醫監의 平面圖(筆者作成)

##### 2. 商山館(客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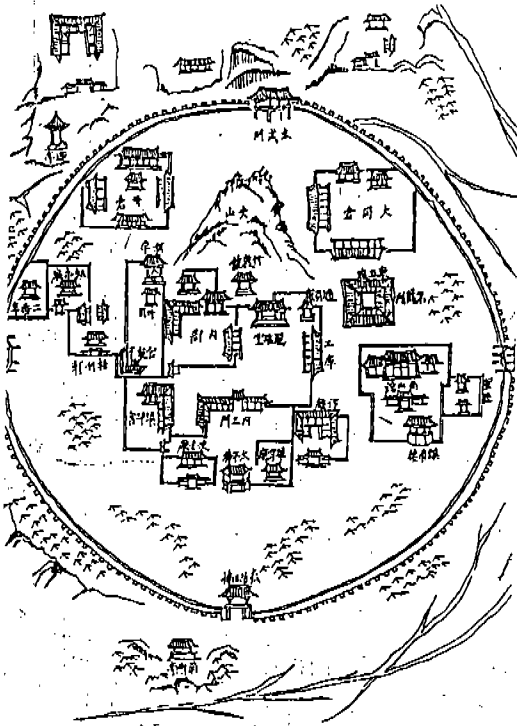
漢陽(서울)과 釜山을 연결하는 主要道路의 中間地點에 位置해 있는 尙州客舍의 商山館은 日本 外交使節의 寄宿所로서 알려져 있으며, 尙州地圖(姜周鎭所藏)(그림3-10)를 보면, 크기가 東西 약500m, 南北 약450m의 邑城 안 東측에 따로 담장으로 둘러 쌓여져 設置되어 있다. 商山館은 高麗時代에 建築되어 朝鮮時代까지 계속하여 客舍로서 使用되었다, 그러나 壬辰倭亂 때에 燒失되어 1666년에 다시 再建하여 現在까지 남

19) 「東來府誌」, 草梁公誠·信堂條.

20) 「承政院日記」, 閏4月.23日條.

아 保存되고 있다. 建物の 構造는 二翼工式으로 中央의 建物과 양측의 翼舍로 되어 있고, 主舍의 前面에는 벽을 대신하여 出入門이 設置되어 있다. 韓日合併 時代에는 商山館의 敷地가 尙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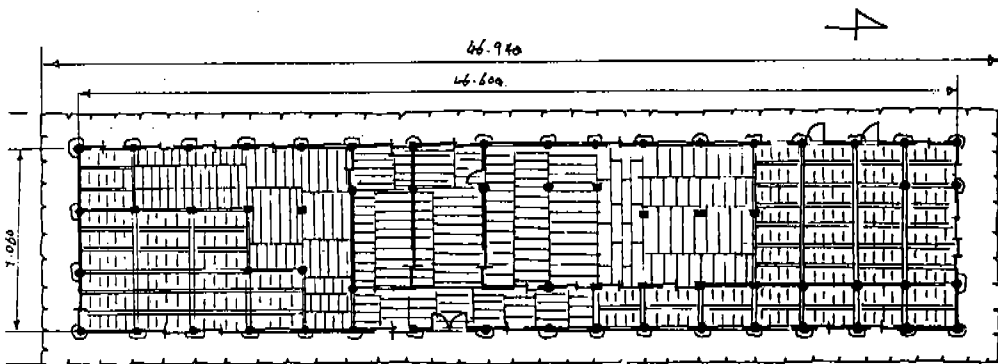
警察署의 設置場所로서 選擇되어 유실될 危機에 처해졌지만 住民들의 努力에 의하여 現在의 壬亂北川戰蹟地 敷地內로 移建되어 保存되고 있다 (그림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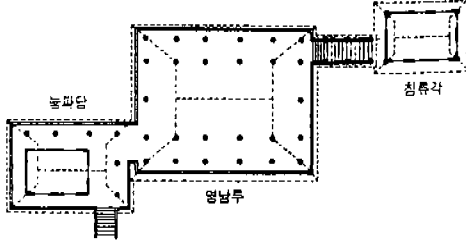
(그림3-10) 尙州地圖(尙州의 魂)

### 3. 嶺南樓

朝鮮前期에 密陽客舍의 附屬建物로서 設置된 嶺南樓는 密陽江의 絶壁위에 建築되어 日本使節과 中央官吏의 留宿, 그리고 饗宴과 風流을 즐기는 곳으로서 알려져 왔다. 이 樓는 1592년에 兵火로 燒失되어 1611년에 復建 되었지만, 1722년에 다시 火災로 인하여 燒失되었다가 1724년에 再建되었다. 1834년에는 다시 大火災로 거의 燒滅 되었으나 1844년에 補修하였다. 그 후 1930년에 다시 全面 補修되어 지금까지 保存되고 있다(그림3-12). 그 構造는 2高柱5梁의 前後左右 퇴집이다. 2列의 内部 高柱에 4면의 外柱가 퇴보와 衝梁으로 連結되어 퇴간을 이루고 있다. 퇴보머리를 龍頭로 彫刻한 楹 등은 朝鮮後期の 裝飾的 傾向이며, 翼工系 構造는 3翼工에 가깝다. 嶺南樓는 3棟의 建物로서 東에는 陵波堂, 西에는 枕流閣을 두고 3棟이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3棟 모두가 겹쳐마의 합각지붕으로 되어 있다.



(그림3-11) 商山館(尙州誌)



(그림3-12) 嶺南樓(韓國의 建築)

## V. 結 論

朝鮮時代に 있어서 日本使節의 歷史와 上京道路·接待·諸施設등을 史的考察과 古地圖를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朝鮮時代に 日本使節이 60余回 朝鮮에 派遣되어 外交와 貿易, 그리고 文化를 交流하였다.
2. 朝鮮前期에 日本使節에 대한 外交施設을 漢陽(서울)과 富山浦, 齊浦, 鹽浦에 設置하였으며, 또 上京道路를 指定하여 使節代表를 漢陽까지 招待하여 接待하였다.
3. 日本 各地域에서 日本人들이 來往하였으며 外交文書 作成에 필요한 많은 僧侶들도 倭館에 常駐하였으며, 日本式 寺刹도 建築되어 있었다.
4. 壬辰倭亂 以後는 漢陽까지 上京이 禁止되어 釜山은 外交 施設의 倭館과 그것을 擔當하는 朝鮮館衙 施設등이 設置되어, 朝鮮時代に 있어서 唯一한 對日外交 都市로서 成長하였다.
5. 日本國王使의 방문시 釜山에서는 迎接施設

의 宴大廳과 客舍에서 정중하게 茶禮儀와 肅拜禮가 行하여 졌다.

6. 朝鮮時代に 日本使節이 留宿했던 施設은 現在 典醫監, 商山館, 嶺南樓가 現存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1) 李鉉淙 : 李朝倭館略考, 成均7號, 成均館大, 1956.
- 2) 金容旭 : 釜山倭館考, 韓日文化, 第1輯 第2卷, 1962.
- 3) 海東諸國紀.
- 4) 增正交隣誌.
- 5) 世宗實錄地理誌.
- 6) 承正院日記.
- 7) 世宗實錄.
- 8) 通文館誌.
- 9) 通航一覽.
- 10) 關野 貞 : 韓國建築調查報告, 東京帝大工科大學, 1904.
- 11) 菊池 謙讓 : 朝鮮諸國記, 朝鮮印刷株式會社, 1925.
- 12) 中村 榮孝 : 日鮮關係史の研究(上·中·下) 吉川弘文館, 1965.
- 13) 小田 省吾 : 釜山の和館と設門について, 朝鮮125號, 1925.
- 14) 小田 省吾 : 李氏朝鮮時代における倭館の變遷, 朝鮮支那文化の研究, 1929
- 15) 田代 和生 : 寬永6年御上京之時每日記(1·2·3), 朝鮮學報(95·98·101), 1981.
- 16) 朴元杓 : 釜山變遷記, 太和出版社, 1970.
- 17) 釜山市史編纂委員會 : 釜山略史, 1965.
- 18) 李進熙 : 韓國寺의 日本, 同和出版公社, 1986.
- 19) 朱南哲 : 客舍建築의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2卷35號, 1986.
- 20) 釜山市史編纂委員會 : 港都釜山, 卷1~7, 1962~1969.

